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정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 진솔성의 매개효과
: 교제기간에 따른 다집단 분석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 다 미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 진솔성의 매개효과
: 교제기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 다 미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성교제 중인 만 18세에서 35세까지의 미혼남녀 517명(남 258명, 여 2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원가족 건강성 척도, 관계진술성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상한 것과 같이 원가족 건강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모형을 살펴본 결과,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 간에 교체기간에 따른 경로차이를 검증한 결과,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고,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성교제 만족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이성관계 만족도, 원가족 건강성, 관계진술성,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9
II. 이론적 배경	11
1. 이성관계 만족도	11
2. 원가족 건강성	14
1) 원가족 건강성의 정의	14
2)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16
3. 관계진술성	19
1) 관계진술성의 정의	19
2) 원가족 건강성과 관계진술성	21
3)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22
III. 연구방법	25
1. 연구절차 및 대상	25
2. 측정도구	26
1)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26
2) 원가족 건강성 척도	27
3) 관계진술성 척도	29
3. 분석방법	30
IV. 연구결과	32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32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	33
3. 매개효과 검증 -----	36
4. 교체기간에 따른 경로차이 검증 -----	38
1) 형태동일성 검증 -----	39
2) 측정동일성 검증 -----	40
3) 구조동일성 검증 -----	41
V. 논의 -----	45
1. 결과에 대한 논의 -----	49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3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6
<표 2>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8
<표 3> 원가족 건강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9
<표 4> 관계진술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0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왜도 및 첨도 -----	32
<표 6> 주요 변인의 하위 변인 간 상관관계 -----	35
<표 7> 모델의 적합도 -----	37
<표 8>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 개효과 검증 -----	37
<표 9> 형태동일성 검증 -----	40
<표 10> 측정동일성 검증 -----	41
<표 11> 구조동일성 검증 -----	41
<표 12> 경로계수 차이 비교 -----	44

그림 목차

[그림 1] 구조모델의 매개효과 설정 -----	36
[그림 2] 교체기간 1년 미만 집단 제약모형 결과 -----	43
[그림 3] 교체기간 1년 이상 집단 제약모형 결과 -----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49세 미혼 남성의 33.8%와 여성의 35.6%가 이성교제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25세에서 29세의 이성교제 비율이 남성 45.5%, 여성 43.1%로 가장 높았고, 30세에서 34세 남성과 여성 모두 38%대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세에서 24세의 경우에도 남성 29.7%, 여성 37.7%가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2014). 또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18세에서 49세의 미혼 남녀 중 이성교제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낸 남성은 64.9%, 여성은 56.5%에 달했으며, 18세에서 34세의 경우 남녀 모두 60% 중후반의 높은 비율로 이성교제에 대한 의사를 나타냈다(조성호, 2014). 이처럼 초기 성인기는 이성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초기 성인기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이성관계 경험은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인 행복감 또한 증진시키며, 대인관계와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일에서까지 높은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이수연, 2010; Cramer, 2004).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이성관계 경험은 이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와 동기가 되며, 원만한 이성관계 경험은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또한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이후 결혼 생활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 만족도, 결혼 이후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기 전반에 걸친 주관적 안녕감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경 등, 2012; 박정은, 2015).

이처럼 만족스러운 이성관계 경험은 생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불만족스러운 이성관계는 좌절과 피로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키고,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조유리, 2014; Whitton & Kuryluk, 2012).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 중 이성관계 문제가 하나의 주된 항목이 되었으며(김유숙, 장춘미, 송지원, 박지현, 장민경, 2011), 정신건강, 성격, 진로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이성관계 문제를 함께 호소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김진희, 2005).

이성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이성희, 2008),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과 헌신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에 긍정적이다(김진아, 2014). 원아름과 박정윤(2016)은 이성교제 관계의 질이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불만족스러운 이성관계의 경험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혼화나 비혼화 현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문제나 이별 후 보복 범죄 등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 3천여 건에 달하며, 그 중 상해 및 폭행을 포함한 폭력 사건이 9천여 건, 살인 및 살인 미수도 102건이나 포함되어 있다(경찰청, 2015).

이와 같이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성교제 관계는 상호간의 책임이 덜하기 때문에 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부 관계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노유진, 박정윤, 김양

회, 2006). 그러나 초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통계청, 2016),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결혼 만족도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고, 이성교제 기간 동안 남녀가 서로에게 적응하던 방법은 결혼 후에도 유형화되어 둘만의 독특한 관계를 확립하게 한다(박휘수, 2017). 그러므로, 성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이성교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결혼 이후의 생활 패턴 및 부부관계 만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홍대식, 2005).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서 초기 성인기의 주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한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물리적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Erikson, 1998). Carter와 McGoldrick(1980)은 초기 성인기를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서 어떤 가족에도 소속되지 않는 성인의 단계로 분류한다. 즉,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과 앞으로 만들어갈 자신의 가족 사이의 중간 기간인 초기 성인기를 새로운 가족생활주기의 첫 단계로 보면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원가족 분화와 건강한 이성관계 경험이 이후 가족생활 전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다(김유숙, 2015).

한편, 이성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족의 부모가 초기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 34.6%, 친구 33.3%, 이성친구 16.8%로 대답하였고, 특히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은 이성친구 39.8%, 부모 30.4%, 친구 15.2%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김나리, 2002). 또한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중시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결혼을 한 부부조차도 정서적, 심리적

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가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하상희, 정혜정, 2008). 즉, 초기 성인기 시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원가족의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초기 성인기 시기의 주요 과업인 이성관계에도 원가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있다. 정문자(2001)는 부모와 밀착된 역기능 가족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정서적 유대결여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건전한 동료 및 이성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원가족 경험과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원(2016)은 이성관계 만족도가 원가족 경험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정서적 의사소통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원가족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중인 커플간의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고(차정화, 전영주, 2002; Eshel, Sharabany & Friedman, 1998), 원가족 건강성과 원가족 분화수준에 따라 개인의 연인관계 유형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우, 김민, 박정선, 2015).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과 공유시간 만족이 높았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경험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애착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박선미, 박경, 2003; 엄혜정, 정혜정, 2006).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손현지, 2009), 부-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모-자녀 관계도 좋으며,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민희 2012). 이성관계에서의 갈등대처행동 역시 원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선영(2015)은 미혼 여성이 원가족에서 지켜온 규칙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이성관계의 갈등상황에 이성적 대처, 긍정적 감정표현,

외부도움 요청, 회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수희와 정문자(2005)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성관계에서의 갈등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아버지와와의 관계가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다. 한편, 성장기 부모화 경험은 아버지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이성과의 낭만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해인, 2012), 부모화의 영향을 받은 남성은 이성관계에서 주로 피상적인 친밀감을 경험하며, 부모화를 경험한 여성이 이성관계에서 지각하는 친밀감은 상대에게 맞춰주기와 눈치 보기의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김노수, 2014). 원가족 경험에서 삼각화가 심할수록, 그리고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이성관계에서 정서적 폭력을 더 사용하며,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이성 관계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더 사용하는데, 특히 어머니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보라, 정혜정, 2009). 성장시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고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공격과 폭력행동과 같은 과격한 방식으로 이성관계에서 갈등을 표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김예정, 김득성, 1999), 남성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지은, 손은정, 2016; 조현정, 이승연, 2014; Peterson, Peugh, Loucks, & Shaffer, 2017). 또한 부모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은 이성관계 짐작, 데이트 폭력 가해, 데이트 폭력 피해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모에 대한 신뢰는 이성친구로부터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성친구에 대한 의심, 데이트 폭력 가해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주지현, 서경현,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원가족 경험이 자녀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가족 경험은 이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원가족 경험과 이성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김민희(2012)는 부모-자녀 관계와 이성관계의 질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한다고 하였고, 엄혜정과 정혜정(2006)은 원가족 삼인군(三人群) 경험이 이성교제만족도의 각 하위 변인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원(2016)은 원가족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정지은과 손은정(2016)은 아동기 정서적 확대와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적응적 정서조절이 매개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원가족 경험이 자아상과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어 일생에 걸쳐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나 정서조절능력, 정서인식명확성 등은 어린 시절 형성되고 난 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고, 상당적인 개입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패턴으로서 비교적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중단기적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진술성(최바울 등, 2013)이 원가족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관계진술성이란 친밀한 두 사람의 상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관계진술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불편감,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감,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내며(Lopez & Rice, 2006), 이성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게 하고 만족감을 얻게 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즉,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한 개인의 진술성이 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짜 자기와 일치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

석 등, 2013). 관계진솔성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에 대해 상대방에게 수용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으로서, 관계진솔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알리기 원할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표현한다. 관계진솔성은 진솔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김지민, 홍혜영, 2016), 진솔성(authenticity)이란 참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내적 사고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Harter, 2002). 진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안녕감, 삶의 만족, 긍정정서, 관계 만족도 등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이향숙, 신희천, 2011; Brunell, Kernis, Goldman, Heppner, Davis, Cascio, & Webster, 2010; Downing, 2008; Goldman & Kernis, 2002; 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Kernis & Goldman, 2006; Lopez & Rice 2006; Wood, Linley, Maltby, Baliousis, Joseph, 2008). 또한 Lopez와 Rice(2006)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관계진솔성이 이성관계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특히 관계진솔성의 하위 요인인 ‘깊이 있게 위험 감수하기’가 성별, 자아존중감, 헌신도, 성인애착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성관계 만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계진솔성은 정서표현이나 자기개방과 일부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개인은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정서표현을 관찰하면서 모델링하고 이를 학습하게 되며(김은혜, 2009), 갈등을 경험하는 가족에서 자란 개인은 감정을 소극적으로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Bueheler & Cerard, 2002).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하게 된다. 즉, 한 개인의 자아상, 가치, 행동, 태도 및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양식은 원가족 맥락 내에서 발달하며, 초기 경험이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다(Rovers, DesRoches, Hunter & Taylor, 2000; 김보라, 정혜정,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관계진술성 역시 원가족 경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생 이성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관계 성장 집단 상담에서 이성관계 갈등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경험에 대해 다루었을 때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더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질적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엄혜정, 정혜정, 2007).

한편,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채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 사람 혹은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곽소영과 이지연(2013)은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차준범, 2016; 최바울 등, 2013). 최바울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관계진술성이 여성과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이에 비해 여성의 관계진술성은 남성과 여성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차준범(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계진술성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남성의 관계진술성은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 커플의 연령은 2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었고, 교제 기간은 편차가 컸다. 교제 기간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55%가 이성교제를 시작한 후 적어도 3개월이 지나야 서로에 대한 친밀, 편안함, 신뢰감 등이 쌓이며 서로 사귀기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했다고 하였으며(김수경, 2003),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이성관계에서의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전반적 관계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곽소영, 2007; 박선미, 박경, 2003; 엄혜정, 정혜정, 2006). 즉, 관계진술성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행동적 특성임을 감안할 때, 관계진술성이 이성교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교제기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채 연구를 시행하여, 이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엄혜정과 정혜정(2006)은 교제기간에 따라 이성관계의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더 좋아졌다고 했고, 박선미와 박경(2003)의 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일 때의 전반적인 이성관계 만족도가 1년 미만일 때보다 높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은 더 낮다고 하였다. 또한 곽소영(2007)은 6개월 미만의 교제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보다 이성관계에서의 전반적 불만족이 유의하게 높았고, 의사소통문제는 6개월 미만보다 1년 이상의 교제기간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합해보면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도와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양상이 변하며, 그 전환의 시기는 대략 교제한지 1년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교제기간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 문제로 인해 이성 관계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 상담 장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위의 연구 목적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원가족 건강성과 관계진술성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관계진술성은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가설 2-1. 관계진술성은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3-1.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제한 지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성관계 만족도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태 중에서도 아주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성관계는 초기 성인기에 가장 중요하게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Erikson, 1998; Furman & Shaffer, 2003). 이는 생애 초기 부모와 맺었던 밀접한 관계가 처음으로 중요한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부모와의 관계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인 이성 친구와의 친밀감은 초기 성인기와 그 이후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성관계는 사회적으로 맺는 대인관계의 유형 중 사랑에 기초한 친밀한 이성과의 낭만적인 관계로서 친구 관계와 구별되는 미혼남녀의 관계이며, 서로가 돌이면서 하나라는 생각과 서로에게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보호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손현지, 2009). 즉, 이성관계란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에 대해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남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며(허은혜, 2015),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는 어떤 계약적인 책임이 없는 미혼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부터 결혼 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계선자 등, 1992).

초기 성인기의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기초가 되고, 성숙한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다(박휘수, 2017). 하지만 원만하지 못한 이성관계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될 만큼 큰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최순남, 1989). 이성관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Whitton & Kuryluk, 2012). 만족스럽지 못한 이성관계는 고독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며(표승연, 2011), 일상에 긴장을 주고 공격성, 신체화, 분노, 좌절, 피로감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반응을 가져온다(Barnes, Brown, Krusemark, Campbell, & Rogge, 2007).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는 개인의 발달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 배우자 선택 및 결혼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 성인기 이후 인생의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민재, 2000). Sprecher(1999)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를 한 커플의 30%가 5년 안에 결혼한다고 하였으며,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태도가 결혼 생활에서도 지속되므로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는 결혼 생활의 준비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나리, 2002). 이성관계를 통해 개인은 남녀관계의 역할을 학습하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이주원, 2016),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보완적인 과정이다(송슬기, 박경, 2013). 건강한 이성관계는 결혼 이후의 만족도를 예견하고, 이성관계에서의 갈등 수준은 결혼 이후 적응에 대한 지표가 된다(Cate, Levin, & Richmond, 2002).

이성관계는 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이뤄 나가야 할 지속적인 관계이므로, 이런 관계에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성관계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백경숙, 박주현, 2015). 만족은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에 따른 실제적 보상과의 일치이며,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을 의미하므로, 이성관계 만족도는 이성관계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나 매력을 의미한다(Ney, 1979, Rusbult, 1980: 이주원, 2016에서 재인용).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이수희와 정문자(2005)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의 갈등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집단과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박남숙, 2005; 한송이, 홍혜영, 2010). 또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면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외현적 자기애보다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취약한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더 낮다고 하였다(최선우, 이영호, 2015; 최지현, 2011).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고 관계진술성이 낮아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지민, 홍혜영, 2016; 정진호, 2016). 또한 이성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노출과 관계진술성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김나영, 2014; 차준범, 2016).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나 성인애착도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되었는데, 이성관계에서 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 긍정적인 정서를 교류하도록 도와 자신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성관계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Lopes et al., 2011). 또한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다른 애착 유형보다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김광은, 이위갑, 2005; 노유진 등, 2006; Guerrero, Farinelli & McEwan, 2009),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정형 남성과 안정형 여성 커플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명숙, 2008). 한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김희경 등, 2012; 박나현, 이지민, 2015), 커플을 대상으로 한 김미정과 조영주(2017)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회피애착과 남자의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회피애착

과 남녀 모두의 불안애착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 건강성

1) 원가족 건강성의 정의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출생하여 갖는 1차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진 가족을 말한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성인의 경우에는 결혼 이전의 가족이 원가족이며, 부모나 형제 등의 가족 구성원이 없이 성장을 한 경우에는 친가족의 역할을 대신 해주었던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을 원가족으로 본다(Hovestadt et al., 1985). 원가족은 가족에서 체험된 한 개인의 역사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은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자신이 만든 새로운 가족에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김태현, 김경자, 2004). 특히, 원가족은 개인의 가족·문화·정서·종교적 체험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가족 구조와 부모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간의 초기 관계형성에 대한 환경을 제공한다(정문자, 전연진, 2004). 즉, 가족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체계이며 관계 경험인 동시에 이후 경험하는 다양한 체계와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가족 경험(family of origin experience)은 한 개인이 원가족 내에서 성장하는 동안 갖는 모든 경험을 의미하며, 광범위한 원가족 경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또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원가족 경험의 조작적 정의와 그에 포함되는 요소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가족 건강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내담자와의 역동이 일어나는 상담자의 원가족 경험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가족의 자율성과 친밀감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 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공동체 의식,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가족의 공평성 등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았다(김보은, 2011; 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 김보은(2011)은 놀이치료자의 원가족 경험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과 치료관계의 상관을 보았으며, 이상리 등(2016)은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 상담자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원가족의 분위기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정겨운 분위기였는지를 의미하는 원가족 건강성 개념을 사용한 연구로는 양육효능감이나 어머니 리더십과의 관계(설희정, 문혁준, 2011; 전주혜, 박정윤, 2010; 한윤정, 정혜정, 2014; 함경애, 2015), 결혼만족이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오종현, 2016; 황소영, 2014),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박현우 등, 2015;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a;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b),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신새봄, 정혜정, 황미진, 2015; 하상희, 2008),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등을 본 연구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연구자가 연구의 특성에 맞게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부모의 부부관계 분화와 삼각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는 원가족 삼인군(三人群) 경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테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김보라, 정혜정, 2009)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엄혜정, 정혜정, 2006)가 있고, 원가족 경험을 원가족 양육경험으로 보고 부의 양육경험과 모의 양육경험을 독립성 조장vs과잉보호 차원과 수용vs거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한 연구도 있다(박경선, 문혁준,

2015; 정미라, 강수경, 2013;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4).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따라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에 차이가 났고,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 건강성, 그리고 가족 건강성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자의 판단 하에 개인이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소들로 척도를 구성하여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가족 건강성 등으로 명명하였다.

2)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 자아상 및 타인과 관계하는 양식의 발달은 원가족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원가족 경험이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Williamson(1978)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원가족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 원가족 건강성은 가족 내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남순현, 2000에서 재인용). 즉,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서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이나 Fairbairn(1952)의 대상관계이론은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이후 커플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세대 정서적 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가족에서 경험했던 불안이 초기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쳐 이성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초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인 건강한 친밀감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았다(김병수, 2014에서 재인용). Bowen(1978)은 여러 가족 치료 이론 중 원가족 경험을 핵심으로 다루면서,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가족의 영향에 따라 무의식

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이 원가족에서 학습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결혼선택을 함으로써 가족의 정서적인 장을 다세대에 걸쳐 반복한다는 것이다.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 정도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가 결혼 후 부부관계와 그 자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wen, 2004). Satir(1988)는 개인의 현재 경험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원가족 경험은 부와 모, 자신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삼인군 경험으로서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 삼인군 경험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삼각화, 의사소통, 가족 규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엄혜정, 정혜정, 2007).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자아존중감으로 내면화되고 또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민희, 2012; 김보라, 정혜정, 2009; 이수희, 정문자, 2005), 원가족 경험은 이성관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성인의 남녀 관계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장 배경 요인, 즉 가족 요인들로는 그동안 부모양육태도(손현지, 2009), 부모화 경험(김노수, 박승민, 2016), 부모자녀 관계의 질(김민희, 2012), 원가족 경험(박선미, 박경, 2003; 엄혜정, 정혜정, 2006; 이주원, 2016)등이 연구되었다. 손현지(2009)는 부와 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모두 이성관계 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김민희(2012)는 부-자녀관계가 좋은 경우 모-자녀관계도 좋은 경우가 많고,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른 시기에 적절치 않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돌봄과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부모-자녀간 역할 전이 현상인 부모화를 경험한 남성은 이성관계에서 주로 피상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고, 여성은 상대에 대해 맞춰주기와 눈치보기의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수, 박승민, 2016). 뿐만 아니라, 이주원(2016)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요인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인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개인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선미, 박경, 2003; 엄혜정, 정혜정, 2006). 조현정과 이승연(2014)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험이 초기부적응도 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정지은과 손은정(2016)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은 남자의 경우 정서조절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여자의 경우 정서인식 명확성을 매개로 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거절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박영은, 2017; 조재숙, 2017). 대학생 혹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이 성인기 친밀한 이성관계를 맺는 방법과 상호작용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엄혜정, 정혜정, 2006; Rovers, DesRoches, Hunter & Taylor, 2000). 이처럼 원가족 경험은 자기 자신과 타인 및 대인관계에 관한 기본적 신념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며, 가족 구성원들이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가족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성인 이후의 전반적인 삶과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족 경험이 어떤 요인을 매개로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 다양하

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 관계진솔성

1) 관계진솔성의 정의

관계진솔성은 친밀한 두 사람의 상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관계진솔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불편감,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감,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낸다(Lopez & Rice, 2006). 즉,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한 개인의 진솔성이 관계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짜 자기와 일치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등, 2013).

관계진솔성은 진솔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진솔성(authenticity)이란 참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내적 사고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Harter, 2002).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한 특성이다(Lopez & Rice, 2006; Rogers, 1951). 관계에서 낮은 진솔성은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초래하기 때문에(Tolman & Porche, 2000) 인간관계에서의 진솔성은 관심의 대상이었다(곽소영, 이지연, 2013). 하지만 진솔성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 진솔성을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관계적 구성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그 두 가지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다(Harter, 1999; Kernis & Goldman, 2006; Lopez & Rice, 2006; Martens, 2005;

Mitchell, 1992; Morgaine, 1994; Sheldon, Ryan, Rawsthorne, & Ilarde, 1997; Wood et al., 2008). Kernis와 Goldman(2006), Martens(2005), Wood 등(2008)은 진정성을 개인차가 있는 기질 특성으로 보았으며, Mitchell(1992)과 Morgaine(1994), Lopez와 Rice(2006)는 관계 맥락에서 진정성을 이해하여 진정성을 관계 구성 개념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Lopez와 Rice(2006)는 Mitchell(1992)의 관계 정신분석이론에 기반을 두고, 관계진솔성을 개인적인 불편함과 상대방의 비수용 및 관계 불안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교환하기를 선호하는 관계 도식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Harter(1999)와 Sheldon 등(1997)은 진정성을 개인별 특성과 관계 구성개념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불일치로 인해 경험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최근에서야 진솔성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기 시작했다(Lopez & Rice, 2006).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진솔성에 대한 연구는 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의 관점으로 진실성에 대해 연구한 김미경(2003)의 연구로부터 진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김예실과 이희경(2010)의 연구와 김홍중(2009)의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연구, 이향숙, 신희천(2011)이 개인적인 특질로서의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기본 심리적 욕구의 관계를 본 연구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수적으로 많은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국내에서 진솔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자 간 조작적 정의의 불일치로 인해 척도가 부재했던 것도 원인이 되지만, 한국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통하는 가까운 관계임을 암시하며,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적 동일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차원에서 눈치가 발달하게 된다(최상진, 김기범, 1999). 또한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를 중요시하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유보적 표현을 미덕으로 삼고 분위기에 따라 말을 아끼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 타협적이고 의례적인 경향을 띤다(장성숙, 2002). 이처럼 집단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진솔성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판단은 양가적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진실성이 높은 사람이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을 더 크게 느끼고 주관적 안녕감을 더 높게 보고 한다는 연구 결과(이향숙, 신희천, 2011)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진솔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원가족 건강성과 관계진솔성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성의 부족은 양육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논의되고 있다. 즉, 부모의 양육에 결함이 있을 때 아동이 부모의 욕구에 순응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진정성과 거리가 먼 ‘허위의 인격’을 발달시키게 되며, 양육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고 순종을 강요하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도 아이가 순응하기 위해 거짓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Harter, 1999; Miller, 1997; 김예실, 이희경, 2010에서 재인용). 지지적이고 수용적이며 안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진솔성의 특성상 양육자가 아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아동은 참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며 (Bleiberg, 1984), Rogers(1951)도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수용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하면 긍정적이고 진솔하며 조화로운 자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최바울 등, 2013에서 재인용).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에게 수용되고 지지받은 경험이 개인의 진솔성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Goldman, Kernis, Stewart, Davis, Casio,

Lakey, & Heppner, 2005; Kernis & Goldman, 2006에서 재인용).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솔성이 낮은 그룹의 학생들은 부모나 또래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여, 자신의 진솔한 생각이나 감정을 억압해야만 지지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났다(Harter et al., 1996).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기억과 진정성 수준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어린시절 부모가 지지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한 양육방식을 사용했다고 기억하는 경우 진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Kernis & Goldman, 2006). 대학생 커플을 상대로 이성관계 갈등상황에 영향을 미친 원가족 경험을 다루는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내담자들이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원가족 경험의 영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한 질적 사례 연구도 있다(엄혜정, 정혜정, 2007).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비지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결함이 있을 때 개인의 진솔성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가족의 분위기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분위기가 자율적이고 친밀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위기일수록 개인의 관계진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계진솔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솔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계진솔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Rice와 Lopez(2006), Wickham(2013)은 이성 관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덜 방어적이라고 느꼈을 때 관계를 더 진솔하게 느끼게 되고 서로에게 신뢰감과 안

정감을 느끼게 되어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박소영과 이지연(2013)도 관계 진솔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즉,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더욱 밀착된 이성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어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계진솔성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기노출과 정서표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관계진솔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구 관계에서 자기노출이 일어날 경우 대체로 친밀감이 상승되어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으며(김교현, 19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높았다(한유진, 민혜림, 2008). 즉,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과 같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자기노출이 이루어졌을 때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옥경희, 2000). 정서표현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으로 내적 경험과 외부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여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생존경쟁에서 적응적 기능을 할 만큼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Darwin, 1872: 장정주, 2012에서 재인용). 김희경 등(2012)은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적게 표현하게 되어 이성관계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성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어 친밀함을 추구하려는 관계진솔성이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 애착(최바울 등, 2013), 내현적 자기에(김지민,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김경선, 2017)이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차준범, 2016)등 개인 내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적 요인이면서도 개인의 총체적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그리고 성장 배경인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진술성을 같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김나영(2014)은 연인간의 라포가 잘 형성되었을 때 자기 노출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자기노출이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만 18세-35세의 미혼남녀 525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G-power 3.1.9.2를 이용하여 .05 수준에서 효과 크기 0.25, 검정력 .90으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251이었다. 이에 집단간 차이를 보는 분석을 고려하여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이성교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남성과 여성에게 골고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수의 패널을 보유한 국내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173명 중 중도에 1030명이 설문을 중단하였고, 618명은 현재 이성교제 중이 아니거나 연령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8명을 제외하고 총 51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각 1300원의 사례가 지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만 26.24세($SD=4.25$)였고,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35세에 분포하였다. 연구 참가자 중 남자는 258명 (49.9%), 여자가 259명 (50.1%)이었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16명 (41.8%)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재학이 135명(26.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17)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	1.2
	고등학교 졸업	49	9.5
	전문대 재학	18	3.5
	전문대 졸업	56	10.8
	4년제 대학교 재학	135	26.1
	4년제 대학교 졸업	216	41.8
	대학원 재학	19	3.7
	대학원 졸업 이상	18	3.5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들의 이성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성교제의 대상에 따라 그 특성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이성교제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성과의 현재까지 이성교제 기간의 범위는 1개월부터 154개월(12년 10개월)이었고, 평균은 26.18개월($SD=25.26$)이었다. 또한 일주일에 평균 데이트 횟수는 2.44번($SD=1.49$)이었다.

2. 측정도구

1)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yn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

한 표현으로 요인 분석하여 부분 수정하고, 이를 이복동(2000)이 요인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전체 척도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는 진위형으로 되어있으며,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유시간 갈등’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문항이다. 원척도에서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 불만족 .9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74,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85, 공유시간 문제 .74로 나타났다.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채점한 조은애(2016)의 연구에서는 전체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6,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전반적 만족 .90, 정서적 의사소통 .85, 문제해결 의사소통 .88, 공유시간 만족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전반적 만족 .89, 정서적 의사소통 .80, 문제해결 의사소통 .85, 공유시간 .79로 나타났다.

2) 원가족 건강성 척도

원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원가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 FOS)를 기초로 한국 정서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FOS-55)의 하위 요인인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요인을 원가족 건강성 척도(FOS-16)로 사용하였다. 최현미(1997)는 상관관계 연구나 다른 척도의 하위척도로 사용하는 등 짧은 문항 수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원가족

척도(FOS-55)를 구성하는 8개의 요인 중 원가족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요인 16문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화목한 가족 분위기에서 가족원 서로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겨운 가족 분위기’, ‘가족간 이해심’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척도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으며, 이주원(201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5,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78, 자유로운 의사표현 .83, 정겨운 가족 분위기 .87, 가족간 이해심 .84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80, 자유로운 의사표현 .79, 정겨운 가족분위기 .88, 가족간 이해심 .77로 나타났다.

<표 2>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신뢰도	문항수	문항번호
전반적 만족	.89	16	1,2,3*,6*,11*,12,16*,23*,25*,27*,29*,31*,32,35*,38*,40*
정서적 의사소통	.80	7	14,15,19*,21,24,34*,39
문제해결 의사소통	.85	12	4*,8*,10*,13*,20,22*,28*,30,33*,36*,37,41
공유시간	.79	6	5*,7,9*,17*,18*,26*
전체	.95	41	

*은 역채점 문항

<표 3> 원가족 건강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신뢰도	문항수	문항번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80	4	1, 3, 6, 11*
자유로운 의사표현	.79	4	2, 4, 13*, 14
정겨운 가족분위기	.88	4	8*, 10, 12, 16
가족간 이해심	.77	4	5*, 7, 9*, 15
전체	.94	16	

*은 역채점 문항

3) 관계진솔성 척도

관계진솔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opez와 Rice(2006)에 의해 개발된 관계진솔성 척도(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AIRS) 37문항을 곽소영과 이지연(2013)이 타당화한 한국판 관계진솔성 척도(Korean version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K-AIRS)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9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진솔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기만에 대한 비수용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정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관련된다.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요인은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며, ‘기만에 대한 비수용’ 요인은 행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지 않으려는 의지와

관련된다. 원척도에서 Cronbach's α 는 .86,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76, .82, .75로 나타났으며, 김지민 등(201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77,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88, 기만에 대한 비수용 .75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86,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88, 기만에 대한 비수용 .81로 나타났다.

<표 4> 관계진술성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신뢰도	문항수	문항번호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86	6	1*,2*,3*,4*,5*,6*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88	10	7,8,9,10,11,12,13,14,15,16
기만에 대한 비수용	.81	6	17*,18*,19*,20*,21*,22*
전체	.88	22	

*은 역채점 문항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들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 진솔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 진솔성이 매개 변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교체기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체 기간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을 나누어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계진솔성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 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서 원가족 건강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Kline(2015)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8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Hong, Malik, & Lee(2003)는 정규성 기준에 대해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정규성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기준 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왜도 및 첨도 (N=517)

변인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 최대값	왜도	첨도
원가족건강성	3.29 (.72)	1.00 - 5.00	-0.21	0.30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3.28 (.80)	1.00 - 5.00	-0.25	0.03
자유로운 의사표현	3.26 (.82)	1.00 - 5.00	-0.13	0.00
정겨운 가족분위기	3.32 (.83)	1.00 - 5.00	-0.16	0.14
가족간 이해심	3.29 (.78)	1.00 - 5.00	-0.15	0.18
관계진술성	5.52 (1.05)	2.88 - 8.80	0.71	0.12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5.69 (1.67)	1.17 - 9.00	0.24	-0.55

친밀함 대한 위험 무릅쓰기	5.97 (1.24)	2.90 - 9.00	0.37	-0.42
기만에 대한 비수용	4.90 (1.33)	1.00 - 9.00	0.12	0.59
이성관계 만족도	3.49 (.59)	1.66 - 5.00	0.16	-0.34
전반적만족	3.54 (.60)	1.81 - 5.00	0.08	-0.30
정서적의사소통	3.60 (.63)	1.43 - 5.00	0.14	-0.15
문제해결의사소통	3.30 (.60)	1.50 - 5.00	0.42	-0.11
공유시간	3.54 (.71)	1.50 - 5.00	-0.15	-0.41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원가족 건강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2, p<.01$). 원가족 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093-.189, p<.05$), 특히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간 이해심($r=.189, p<.01$)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원가족 건강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33-.172, p<.01$), 특히 원가족 건강성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의사소통($r=.172, p<.01$)과 문제해결 의사소통($r=.172, p<.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전반적 만족과 공유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겨운 가족분위기, 가족간 이해심은 모두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116-.188, p<.01$).

둘째, 원가족 건강성은 관계진술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53, p<.01$). 원가족 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은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친밀함에 대한 무릅쓰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100-.266, p<.01$), 특히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간 이해심과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66, p<.01$).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기만에 대한 비수용은 원가족 건강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정겨운 가족분위기($r=-.146, p<.01$)와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r=-.110, p<.05$)만이 기만에 대한 비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34, p<.01$). 또한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 모두와 이성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172-.661, p<.01$),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661, p<.01$).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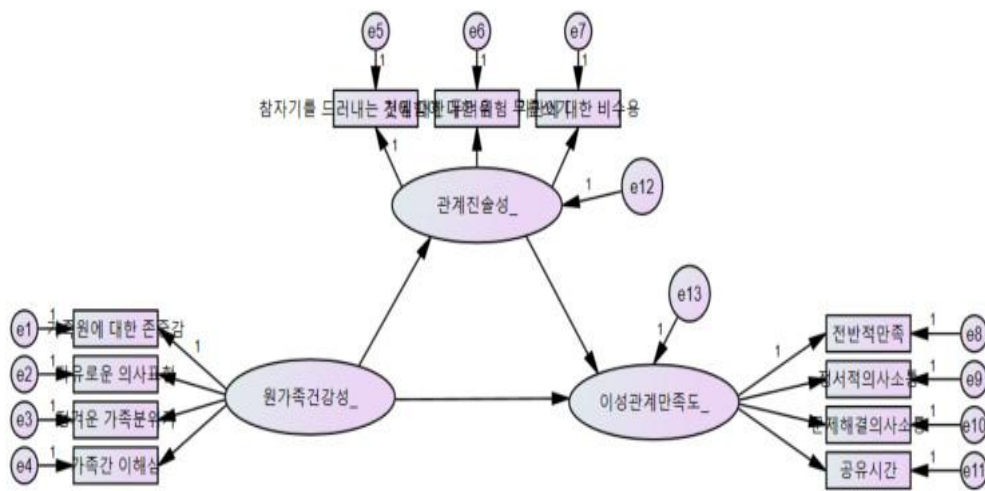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86**	1												
3	.93**	.79**	1											
4	.88**	.62**	.75**	1										
5	.90**	.68**	.80**	.75**	1									
6	.15**	.09*	.18**	.09*	.18**	1								
7	.23**	.13**	.24**	.20**	.27**	.85**	1							
8	.16**	.16**	.18**	.13**	.10*	.66**	.39**	1						
9	.08	-.11*	.03	-.15**	.00	.69**	.40**	.13**	1					
10	.17**	.09*	.17**	.16**	.19**	.63**	.66**	.45**	.25**	1				
11	.13**	.06	.13**	.12**	.17**	.64**	.65**	.44**	.29**	.93**	1			
12	.17**	.11**	.17**	.16**	.17**	.55**	.56**	.47**	.17**	.92**	.80**	1		
13	.17**	.09*	.17**	.17**	.19**	.59**	.64**	.42**	.21**	.94**	.85**	.84**	1	
14	.16**	.08	.18**	.15**	.18**	.58**	.61**	.37**	.26**	.93**	.83**	.78**	.83**	1

* $p < .05$, ** $p < .01$

주. 1. 원가족건강성, 2.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 3. 자유로운 의사표현, 4. 정겨운 가족분위기, 5. 가족간 이해심, 6. 관계진술성, 7.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8. 친밀함에 대한 위협 무릅쓰기, 9. 기만에 대한 비수용, 10. 이성관계 만족도, 11. 전반적 만족, 12. 정서적 의사소통, 13. 문제해결 의사소통, 14. 공유시간

3. 매개효과 검증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0.0에서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이용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구조모델의 매개효과 설정

원가족 건강성과 관계진술성,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 나타난 모델의 적합도는 CFI>.9, TLI>.9로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원가족 건강성의 간접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Bootstrap은 1,000번 실시하였다.

<표 7> 모델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매개모델	216.205***	41	..959	.945	.091 (.079~.103)

*** $p < .001$

<표 8>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B	S.E.	t	β		
				direct	indirect	total
원가족건강성 → 관계진술성	0.604	0.113	5.328	0.274***		0.274
관계진술성 → 이성관계만족도	0.314	0.025	12.414	0.813***		0.813
원가족건강성 → 이성관계만족도	-0.031	0.033	-0.931	-0.037	0.223**	0.186

** $p < .01$, *** $p < .001$

분석결과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274^{**}$),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813^{***}$),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7, p = .352$). 그러나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을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Bootstrapping 테스트에 의해 파악한 결과, $\beta = .223^{**}$ 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교체기간에 따른 경로차이 검증

이성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계수의 크기를 집단 간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태동일성 검증과 측정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 경로의 계수가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체 집단을 이성교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N=142$)과 1년 이상인 집단($N=375$)으로 나누고,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은 집단 간 어떤 제약도 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로 동일성 제약을 통계적으로 평가하여 두 집단의 요인 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즉, 모형의 요인 수와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수가 비교집단에서 동일한가를 검증한다(Chen, 2007). 이 때 형태동일성이 확인된다는 것은 이후 단계의 측정동일성 모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비교집단에서의 모수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Byrne & Stewart, 2006). 형태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이 확인된 후,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요인부하량 불변성(factor loading invariance) 단계로 요인부하량 제약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비교집단에서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것이다(Schmitt & Kuljanin, 2008; Vandenberg & Lance, 2000). 측정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측정도구를 통한 집단 간 비교가 일정한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허만세 외, 2015)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측정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Chen,

2007). 그리고 앞의 두 조건을 만족하여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가 동일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내의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제약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저모형) 간 χ^2 변화량 검증을 실시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비교한다.

1) 형태동일성 검증

다집단 분석에서는 모형 내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과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먼저 집단간 경로모형의 형태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형태동일성 검증은 경로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동일한 형태의 인과관계 모형으로 집단 간에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문수백, 2013).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인 기저모형의 요인구조가 각 집단 간에 동일하면 형태동일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이성교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N=147$)과 1년 이상인 집단($N=375$)간의 형태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두 집단 자료에 모두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1년 미만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chi^2(df=41, N=147)=83.194, p<.001, TLI=.954, CFI=.965, RMSEA=.085, SRMR=.069$, 1년 이상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chi^2(df=41, N=375)=170.397, p<.001, TLI=.942, CFI=.957, RMSEA=.092, SRMR=.055$ 로 두 집단 모두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표 9> 형태동일성 검증

교제기간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SRMR
1년 미만	83.194***	41	.000	.954	.965	.085 (.059~.112)	.069
1년이상	170.397***	41	.000	.942	.957	.092 (.078~.106)	.055

*** $p < .001$

2) 측정동일성 검증

교제기간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른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형태동일성이 검증된 두 집단을 합한 전체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각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chi^2(df=82, N=517)=253.652, p < .001, CFI=.959, TLI=.946, RMSEA=.064$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각 집단의 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모형으로 하여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와 적합도 차이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 방법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정확한 차이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이 있어 χ^2 차이 검증보다 모형적합도 지표의 차이 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Chen, 2007).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N=517$)가 많으므로 측정동일성 분석에서는 적합도 지표의 차이 값을 활용하였으며, 적합도 차이의 기준은 Chen(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Chen(2007)은 구체적인 차이 값의 비교 기준으로 $\Delta CFI \geq -.010$ 을 제시하고 있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Delta CFI=0$ 으로 ΔCFI 가 임계치를 만족시켰다. 따라서 이성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 간에는 측정동일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10> 측정동일성 검증

	χ^2	<i>df</i>	<i>CFI</i>	<i>TLI</i>	<i>RMSEA</i> (90%신뢰구간)
기저모형	253.652***	82	.959	.946	.064 (.055~.073)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62.178***	90	.959	.950	.061 (.052~.070)

*** $p < .001$

3) 구조동일성 검증

이성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구조모형 내의 경로계수 각각을 동일하게 제약한 구조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두 모형 간 $\Delta\chi^2=.611$, $\Delta df=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구조동일성 검증

	χ^2	<i>df</i>	<i>CFI</i>	<i>TLI</i>	<i>RMSEA</i> (90%신뢰구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262.178***	90	.959	.950	.061 (.05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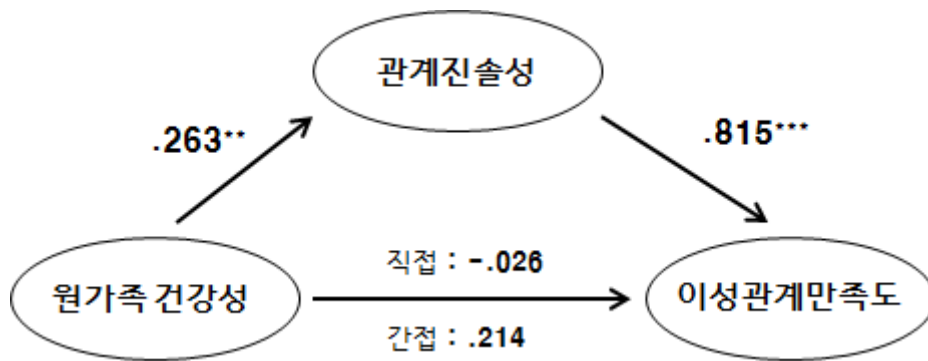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262.799***	93	.960	.953	.060 (.051~.068)
모형간 차이 검증 $\Delta\chi^2=.611$ ($\Delta df=3$, $p=.995$,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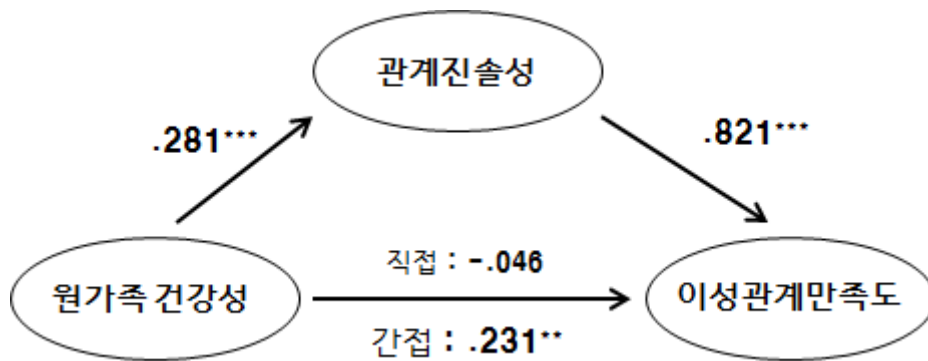
χ^2 차이검증을 통해 이성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에서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에 미치는 영향이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beta=.263^{**}$)과 1년 이상인 집단($\beta=.28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beta=.815^{**}$)과 1년 이상인 집단($\beta=.82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고,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beta=-.026$)과 1년 이상인 집단($\beta=-.046$)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Δdf 가 1일 때 χ^2 의 차이가 기준값인 3.8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경로에서는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의 경로계수 차이를 보면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214$), 교체기간 1년 이상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231^{**}$)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교체기간 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기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 12>에 나타나있으며,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표시한 교체기간 1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집단의 모형은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있다.



[그림 2] 교체기간 1년 미만 집단 제약모형 결과



[그림 3] 교체기간 1년 이상 집단 제약모형 결과

<표 12> 경로계수 차이 비교

경로	1년 미만		1년 이상		$\Delta\chi^2$	Δdf		
	비표준 화계수 (b)	S.E.	표준화 계수 β	비표준 화계수 (b)			S.E.	표준화 계수 β
원가족건강성 → 관계진솔성	.464	.177	.263**	.667	.143	.281***	.179	1
관계진솔성 → 이성관계만족도	.354	.052	.815***	.308	.029	.821***	.057	1
원가족건강성 → 이성관계만족도 (직접효과)	-.02	.057	-.026	-.041	.041	-.046	.279	1
원가족건강성 → 이성관계만족도 (간접효과)			0.214			0.231**		

* $p < .05$, ** $p < .01$, *** $p < .001$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미혼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 경로에서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 간에 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만족도, 관계진술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만족도, 관계진술성 사이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은 물론, 각 변인의 하위요인끼리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 요인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이주원(2016)의 연구와 일치하며, 원가족 경험을 구성하는 요인인 부모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개인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선미, 박경, 2003; 엄혜정, 정혜정, 2006)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원가족 건강성은 관계진술성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부모에게 수용되고 지지받은 경험이 개인의 진술성을 촉진시킨다는 Goldman 등(2005)의 연구와 어린시절 부모가 지지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한 양육방식을 사용했다고 기억하는 대학생의 진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Kernis와 Goldman(2006)의 연구, 대학생이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 원가족 경험의 영향이었음을 보고한 엄혜정과 정혜정(2007)의 질적 사례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 중 기만에 대한 비수용은 원가족 건강성의 각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거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과 정겨운 가족분위기는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기만에 대한 비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 외의 원가족 건강성 요인들은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기만에 대한 비수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분위기가 정겨울수록, 기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진술성의 하위요인인 기만에 대한 비수용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나는 진정한 나이기보다는 남자(여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남자(여자) 친구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것에 있어서 나의 실제 감정을 의도적으로 숨긴다’, ‘남자(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선의의 거짓말을 기꺼이 할 것이다’, ‘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가끔 남자(여자)친구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그녀)가 듣고 싶어할 것 같은 말을 한다’, ‘나는 때때로 남자(여자)친구에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믿도록 인상을 심어주려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남자(여자)친구가 나에게 대해 완벽히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역채점 문항이었다. 즉, 기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선호를 더 고려하고 맞추어주며, 관계를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원을 서로 존중하고 정겨운 가족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는 상대방, 그리고 상호관계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남의 보는 눈과 체면을 중시하

며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의견보다 집단적 동일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집단주의적 특성을 띄는 한국의 문화(장성숙, 2002; 최상진, 김기범, 199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관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덜 방어적이라고 느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한 연구 결과(Lopez, 2006; Wickham, 2013)와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연구 결과(곽소영, 이지연, 2013; 김경선, 2017; 김지민, 홍혜영, 2016)를 지지한다.

둘째, 미혼남녀의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에서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여,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관계진술성 수준도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지적이고 수용적이며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진술성의 특성상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수용과 긍정적 존중을 경험하면 진술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Bleiberg, 1984; Rogers, 1951). 실제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방식이 지지적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었다고 기억하는 대학생의 진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Kernis & Goldman, 2006), 진술성이 낮은 중학생들은 부모나 또래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술한 생각이나 감정을 억압해야만 지 지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나타냈다(Harter et al., 1996: 곽소영, 이지연, 2013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그 원인을 원가족 경험의 영향에서 찾았다는 보고가 있다(엄혜정,

정혜정, 2007). 즉, 원가족의 분위기가 자율적이고 친밀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고 건강할수록 자녀는 지지받고 수용받고 긍정적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계진솔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솔성을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솔성을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관계진솔성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선미와 박경(2003),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원가족의 경험은 이성관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 이주원(2016)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의 부부관계의 건강성이 높고 안정적인수록 이성관계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되어 이성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원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분위기가 따뜻하고 건강할수록 성인기의 이성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높은 관계진솔성과 높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성교제기간에 따라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관계진솔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진솔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즉,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지만, 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매개한다는 의미이다. 엄혜정과 정혜정(2006)은 이성교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보다 1년 이상일 때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더 좋아졌다고 하였고, 박선미와 박경(2003)은 교체기간이 1년 이상일 때의 전반적인 이성관계 만족도가 1년 미만일 때보다 높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은 낮다고 하였으며, 곽소영(2007)은 1년 이상의 교체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6개월 미만의 교체기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의사소통문제를 더 느낀다고 하는 등 선행연구 결과는 교체한 지 1년 정도 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이성관계에서의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원가족 건강성과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도 1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교체기간 1년 미만인 집단과 1년 이상인 집단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체한 지 1년 이상이 된 집단에서는 1년 미만일 때와 달리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관계진술성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체기간이 1년 이상인 집단에서 관계진술성의 영향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교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와 달리, 1년 이상일 때 관계진술성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관계진술성을 관계적 구성개념으로 이해한 학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Mitchell(1992)은 진솔한 자기(authentic self)는 다양한 인지 및 정서경험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요인이

라고 하였으며, Morgain(1994)은 진솔성을 상호성과 존중에 바탕을 둔 자기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며 관계맥락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곽소영, 이지연, 2013에서 재인용). Lopez와 Rice(2006)는 진솔성을 관계도식으로 이해하고, 파트너의 비승인이나 관계 불안정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기 경험을 파트너와 정확하게 교환하기를 선호하는 관계도식으로 정의하여 관계라는 특정영역에서 진솔성을 보는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관계 안에서 진솔성을 본 연구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교체기간이 1년이 넘어간 집단에서 자신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높은 관계진솔성 정도를 가지느냐가 이성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Bowen(1978)의 정서체계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근거로 원가족의 건강성이 이후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다세대 정서적 과정을 지지한다. Williamson(1978)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원가족과의 문제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할 뿐, 원가족 건강성은 가족내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자녀세대의 자아상, 가치, 행동, 태도 및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이 직접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한편, 원가족에서 지지받고 수용된 경험이 있으며 친밀함을 느꼈던 자녀 개인이 성인이 되어서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개방할 수 있는 관계진솔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이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원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겨운 가족분위기가 높을수록 관계진솔성의 하위요인인 기만에 대한 비수용은 낮아져 오히려 기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의 원가족 건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연화(2012)는 서양문화권에서 원가족 건강성의 특징

이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한국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중시,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규정해나가는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중시한다고 보았다. 즉, 한국문화권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이 좋을수록 개인보다는 관계에 더 가치를 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건강성 전체와 관계진술성 전체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을 나타냈고 이성관계 만족도와도 정적 관련을 보였다. 이는 개인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친밀한 가족 내에서 건강하게 정서표현을 주고 받고 수용 받았던 개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이로 인해 높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담실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관계진술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의 문제로 인한 낮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진술성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원가족 건강성은 개인이 혼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관계진술성은 행동패턴이며 개인의 연습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가족 건강성보다 비교적 개입이 용이하다. 단시간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기,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부정적인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긍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등 진술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중단기적 변화를 도모하고 실제 관계에 적용하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최바울 등, 2013).

둘째,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의 장면에서 건강하고 친밀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가족관계를 위해 자기 자신의 정말 솔직한 기분이나 감정, 생각을 습관적으로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점검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연습할 수 있는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것에 대해 교육하거나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눈치껏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 줄 것이라는 한국적인 정서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직면하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셋째, 커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진술성 수준을 높이는 연습을 함께 해보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플이 함께 어느 정도 관계진술성 수준을 가졌을 때 서로 편안하고 관계 만족이 높은지 탐색해보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을 차차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 장면에서 실제로 자신의 원래 모습이나 생각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모습이 충돌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생각해보면서 그 때 어떤 선택을 했고 선택에 따라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원래 모습이나 생각을 숨겼던 경우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그로 인해 상대방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경우에 따라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자신의 만족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었는지 탐색하고 앞으로 다가올 유사한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성관계와 관련된 개인 상담이나 커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교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근거를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체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보다 교체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자신의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므로 이성관계 문제로 찾아온 내담자나 커플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관계진술성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관계진술성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였고, 원가족 건강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변인 간 관련성을 횡단설계로 검증한 연구이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인 수준 및 변인 간 관계 정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설계를 통해 시간에 따른 관계진술성 및 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원가족 건강성과의 관련성 또한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강성이 성인기의 중요한 관계인 이성관계에 영향을 줄 때 관계진술성이 매개함을 확인하였지만, 원가족 건강성의 정도에 따라 원가족 문제가 극도로 심각하거나 고도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 인식이나 정서 표현 등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지 관계진술성에 개입함으로써 이성관계 문제의 해결이나 만족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원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성관계를 보다 만족스럽게 할 수 있기 위해 다루어야 할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계진술성 척도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국내에서 수정 및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 대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수정 및 타당화한 척도이기 때문에 더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척도는 아닐 수도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계진술성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미혼남녀였으나, 연령을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5세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만 36세 이후의 미혼자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미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원가족 건강성이 개인의 관계진술성의 정도에 영향을 주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하였지만, 개념상 이성관계 만족도가 관계진술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인과적 관련성 또한 배재할 수 없다. 이성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관계진술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2015). 2015 경찰범죄통계, 사이버경찰청.
- 계선자, 김명자, 이정우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곽소영, 이지연 (2013). 한국판 관계 진솔성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 연구, 14(4), 2213-2232.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경선 (2017).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8.
- 김교현 (1992). 친교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96-222.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노수, 박승민 (2016). 부모화 경험이 남녀 기독교인 대학생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1), 9-41.
-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

- 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59-74.
- 김미경 (2003).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진실성'의 의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 김민희 (2012). 부모-자녀 관계의 질 및 외모만족도와 대학생의 이성관계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수 (2014). 대학생의 원가족 건강성이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2(4), 337-345.
- 김보라, 정혜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자아존중감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49-75.
- 김보은 (2011). 놀이치료자의 원가족 경험, 정서경험특성 및 놀이성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15). 원가족 규칙이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중인 20-30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실, 이희경 (2010). 진정성에 대한 고찰. 인간이해, 31(2), 1-21.
- 김예정, 김득성 (1999).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유숙 (2015).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김유숙, 장춘미, 송지원, 박지현, 장민경 (2011). 2011학년도 학생생활연구소 이용 및 활동현황. 학생생활연구, 24, 155-164.
- 김은혜 (2009). 부부갈등 및 부부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4(3), 37-49.
- 김진아 (2014). 미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 관계와 사랑,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결혼의사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2005).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37-151.
- 김태현, 김경자 (2004). 기혼 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6(1), 3-35.
-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5), 1-29.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 문수백 (2013).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경선, 문혁준 (2015). 대학생 예비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년기의 부모화 및 원가족 양육경험이 아버지 양육 참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1), 25-46.
- 박경은 (2015). 이성교제 갈등으로 상담을 경험한 대학생의 심리내적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797-824.
- 박나현, 이지민 (2015). 미혼 성인 남녀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5(11), 275.
- 박남숙 (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97-215.
- 박선미, 박경 (2003). 미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3(1), 69-84.
- 박현우, 김민, 박정선 (2015).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원가족건강성이 연인관계유형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1), 189-216.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박휘수 (2017). 미혼 남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용서에 대한 신념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박주현 (2015). 가족 건강성, 이성교제 만족도 및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3), 503-524.
-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관계 만족에서 공동대처방략의 매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45-468.
- 설희정, 문혁준 (2011).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가족 분화 및 원가족 건강성이 어머니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139-158.
- 손현지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슬기, 박경 (2013).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영향에 관한 고찰.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3(2), 63-86.
- 신새봄, 정혜정, 황미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 분화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3), 553-577.

- 엄혜정, 정혜정 (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 엄혜정, 정혜정 (2007). Satir이론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관계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질적 사례 분석-대학생 이성커플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8(2), 769-792.
- 오종현 (2016).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7(2), 509-532.
- 옥경희 (2000). 인간관계훈련이 자기노출과 인간관계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7, 1-25.
- 원아름, 박정윤 (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이민재 (2000). 성인 전기의 사랑 유형과 자아 존중감, 신뢰감 및 관계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 긍정적 원가족 경험, 자기자각, 역전이 관리 능력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1), 105-121.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이성희 (2008). 대학생의 결혼기대와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124-130.
- 이수연 (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수희, 정문자 (2005). 대학생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이성 파트너와의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3(2), 33-45.
- 이주원 (2016). 미혼남녀의 원가족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향숙, 신희천 (2011). 진실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2(5), 1561-1577.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a).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b).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71-82.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47-561.
- 장정주 (2012).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147-170.
- 전주혜, 박정윤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정문자 (2001). 연구와 임상에서 살펴 본 한국 가족문제와 관련변인.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9(2), 1-34.
- 정문자, 전연진 (2004).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3), 41-55.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미라, 강수경 (2013).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양육경험, 자녀가치, 자녀기대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177-202.
-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4).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완벽주의 성향과 놀이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2), 105-126.
- 정은이 (2008). 일상적 창의성과 사랑유형 및 상호이해, 관계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32, 95-117.
- 정지은, 손은정 (2016).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8), 242.
- 정진호 (2016).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3, 14-23.
- 조유리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와 성격강점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애 (2016).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유기불안과 연애관계 만족도의 관계: 자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 차정화, 전영주 (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의 관계. 한국가족학회지, 7(1), 39-57.
- 차준범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선우, 이영호 (2015). 이성관계에서 자기에 성향에 따른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만족도의 차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6(1), 21-40.
- 최순남 (1989).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한신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31-67. 한신대학교.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 연구, 13(2), 689-704.
- 최지현 (2011). 대학생의 성별 및 자기에 성향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 표승연 (2011).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통합인과모형의 검증: 조절초점의 부합도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하상희 (2008). 부모와 자녀 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이 대학생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15-132.
- 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송이, 홍혜영 (2010).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연구. 통합치료연구, 2(1), 25-48.
- 한유진, 민혜림 (2008). 청소년의 심리적 반발심, 정서적 회피 및 자기노출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4), 155-156.
- 한윤정, 정혜정 (2014).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4), 855-881.
- 함경애 (2015). 원가족 건강성과 양육 효능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3), 549-564.
-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E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313-339.
- 허은혜 (2015).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기술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와 주의조절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67-90.
- 황미진, 신유순, 김병수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17(2), 195-212.
- 황소영 (2014). 예비유아교사의 자기분화와 원가족 건강성, 자아탄력성 및

-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8(5), 503-525.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nes, S., Brown, K. W., Krusemark, E., Campbell, W. K., & Rogge, R. D. (2007). The role of mindfulness i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sponses to relationship str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4), 482-500.
- Bowen, M. (2004).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Inc.
- Brunell, A. B., Kernis, M. H., Goldman, B. M., Heppner, W., Davis, P., Cascio, E. V., Webster, G. D., (2010) Dispositional authentic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900-905.
- Buehler, C., & C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 78-92.
- Byrne, B. M., & Stewart, S. M. (2006). Teacher's corner: The MACS approach to testing for multigroup invariance of a second-order structure: A walk through the pro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2), 287-321.
- Cate, R. M., Levin, L. A., & Richmond, L. S. (2002).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2), 261-284.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ramer, D. (2004). Satisfaction with a romantic relationship, depression, support and conflic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7(4), 449-461.
- Downing, V. L. (2008). *Attachment style, relationship satisfaction intimacy, loneliness, gender role beliefs, and the expression of authentic self in romantic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Maryland USA: University of Maryland.
- Erikson, E. H. (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W. Norton.
- Eshel, Y., Sharabany, R., & Friedman, U. (1998). Friends, lovers and spouse: Intimacy in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41-57.
- Fairbairn, W. R. D. (1952). *An Object-Relations Therapy of The Personality*. New York: Basic Books.
- Goldman, B. M., & Kernis, M. H. (2002). The role of authenticity in healthy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5, 18-20.
- Guerrero, L. K., Farinelli, L., & McEwan, B. (2009). Attachment and relation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87-514.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 Harter, S. (2002). Authenticit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Marold, D. B., Whitesell, N. R., & Cobbs, G. (1996). A model of the effects of parent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360-374.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 of 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Kernis, M. H., & Goldman, B. M. (2006). A multi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authenticity: Theory and research.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283-35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opes, P. N., Nezlek, J. B., Extremera, N., Hertel, J., Fernández Berrocal, P., Schütz, A., & Salovey, P. (2011). Emotion regulation and th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Does the ability to evaluate emotional situations and identify effective response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79*(2), 429-467.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62-371.
- Martens, W. H. (2005). A theoretical model of fragile authenticity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Practice*, *2*, 1-18.
- Mitchell, S. A. (1992). True selves, false selves, and the ambiguity of authenticity. In N.J. Skolnick & S. S. Warshaw (Eds.), *Rel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analysi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Morgaine, C. A. (1994). Toward authenticity: A critical theory of self-formation. *Advanced Development*, *6*, 41-55.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 Rovers, M., DesRoches, L., Hunter, P. E., & Taylor, B. (2000). A family of origin workshop: Process and evaluation. *The Family Journal*, *8*(4), 368-375.
- Satir, V. (1988). *The new people 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anc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heldon, K. M., Ryan, R. M., Rawsthorne, L. J., & Ilardi, B. (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80.
- Sprecher, S. (1999). 'I love you more than today than yesterday':

- Romantic partner's perception of change in love and related affect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6-53.
- Tolman, D. L., & Porche, M. V. (2000). The Adolescent Femininity Ideolog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for girl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4), 365-376.
- U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179-194.
- Whitton, S. W., & Kuryluk, A. D. (2012).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s: cross-sectional associations and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2), 226-235.
- Wickham, R. E. (2013). Perceived authenticity in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878-887.
- Williamson, D. S. (1978). New life at the graveyard: A method of therapy for individuation from a dead former par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 93-102.
- Wood, A., Linley, P. A., Maltby, J., Baliousis, M., Joseph, S. (2008). The authentic personality: A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uthenticity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3), 385-399.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설문지는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가족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성교제 중이신 분들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설문결과는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가족경험과 이성관계 경험과 특성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관계를 이해하여 이성교제 커플과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에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해당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아래 연구담당자 번호 혹은 메일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2017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연구담당자: 이다미

(H.P.: 010-4300-0612 / E-mail: zootypoet@hanmail.net)

지도교수: 이정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전달받고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께서는 올 해 만으로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께서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4. 귀하께서는 현재 교제중인 이성과 교제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A. 귀하께서는 현재 교제중인 이성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며칠 정도

데이트하십니까? ()회/일주일

Q. 본 설문

Q1-1.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남자(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의 이성교제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남자(여자)친구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는 같이 이야기를 할 주제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때때로 나는 남자(여자)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친구에게 대신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남자(여자)친구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남자(여자)친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2.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남자(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때로 나는 남자(여자)친구를 몹시 떠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는 다들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내 남자(여자)친구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남자(여자)친구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남자(여자)친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이성교제 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관계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남자(여자)친구는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남자(여자)친구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Q1-3.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남자(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단 한순간도 우리 만남을 후회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남자(여자)친구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관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일이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이성교제 관계에는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남자(여자)친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남자(여자)친구에게 항상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는 지금보다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남자(여자)친구는 내가 바라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1-4.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와 귀하의 남자(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남자(여자)친구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남자(여자)친구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종 큰 다툼으로 발전한다					
(4)	만일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남자(여자)친구는 때때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때때로 우리 만남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때때로 나는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인들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남자(여자)친구는 때때로 내 성격의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남자(여자)친구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Q2-1.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여자)친구에 대해 알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2)	만일 어떤 것에 대한 남자(여자)친구의 진짜 마음(감정)을 알았다면, 아마도 나는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내 모습을 남자(여자)친구에게 속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남자(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은 사실 진정한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남자(여자)친구에게 내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추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남자(여자)친구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놀라고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비록 남자(여자)친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나는 가장 깊은 감정들을 남자(여자)친구에게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내 행동 이면의 진짜 이유와 동기를 항상 남자(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비록 남자(여자)친구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장 깊은 속 이야기(생각)를 남자(여자)친구와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내 상황은 남자(여자)친구에게 속속들이 다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남자(여자)친구에게 내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Q2-2. 다음은 귀하와 현재 귀하와 교제중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남자(여자)친구가 하는 나에게 대한 질문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대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남자(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놓고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온전히 '진정한 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만일 남자(여자)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에게 대한 평가가 낮아지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남자(여자)친구와 나 사이에 금지된 이야기거리리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진정한 나'이기 보다는 남자(여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남자(여자)친구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것에 있어서 나의 실제 감정을 의도적으로 숨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남자(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선의의 거짓말을 기꺼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가끔 사실이 아니어도 남자(여자)친구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다									
(10)	때때로 남자(여자)친구에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믿도록 인상을 심어주려는 나를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남자(여자)친구가 나에게 대해 완벽히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Q3-1.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족의 일반적인 분위기, 귀하가 가족에 대해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족은 귀하가 독립하기 이전, 귀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로 구성된 원가족을 의미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새로운 친구와의 교제를 장려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감정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모는 내가 나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정에서 내 태도나 감정은 자주 무시당하거나 비난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앞에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게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때때로 우리 가족 내에서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Q3-2.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족의 일반적인 분위기나 귀하가 가족에 대해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족은 귀하가 독립하기 이전, 귀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로 구성된 원가족을 의미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견해에 수용적이지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갈등을 말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정에서는 식사 시간이 대체로 정겹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정에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때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 가족을 따스하고 지지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uthenticity-in-Relationships in
Relation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Period of Romantic
Relationship**

Lee, Dami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uthenticity-in-relationships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 less than one year of associations and groups with more than one year of associations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517 unmarried men and women (258 males and 259 females) aged between 18 and 35 who are currently undergoing resignation has been analyzed. Family of Origin Health Scale, Authenticity in Relationship Scale,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Scale were used as a measurement too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ith major factors, such as origin family health, authenticity in relation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 family health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inal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path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ellowship period between the group with less than one year of associations and the group with more than one year associ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between origin family health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group of less than one year associations, and in the group of more than one year associ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between origin family health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 family health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is fully mediated by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and confirm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di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with less than one year of associations and the group with more than one year associations. It is meaningful that they provided the rationale of the counseling approach that can help improve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Family-of-origin health,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Multi-group analysis